

工의苦心作업을알수있다.光背一端이破失됨이유감이나三尊이完存함은또한香徒의造成發願에의함일까

(三尊現高二〇・五cm 前面幅二五cm 厚八cm) (七月十四日)

### 高麗 梵鐘의 新例

鄭 永 鎬



通型的靑銅製高麗梵鐘으로總高二〇cm의小鐘이다.鐘頂에는甬筒과龍紐가있으나現在는寶珠를갖고있는龍의一足만이殘存하고그外部分은缺損되어있다.鐘肩上周緣에는山形文을들렸으나破損된部分과우구러진곳이 많으며上,下帶에는等行의數條線으로波狀文을새겼다.上帶에連한乳廓이四處에配置되었는데二條線으로된波狀文을늘린안에는圓形內에球形의九乳頭가突出되어있다.幢座는三處에있으며圓形으로서는蓮瓣은없다.鐘腹에는四處에坐像이陽鑄되었으나磨損과靑銹로尊名은分別키어렵다.한편一幢座윗편과坐像間地에는各一點씩(都合二個)同一한手法의彫飾(樂器類?)이있어注目되었다.鐘口가두들하게잡히는高麗鐘으로서鐘身에若干우구러진部分이있으나鐘全面에靑綠銹가있고鐘頂의龍紐에傷痕이있을뿐

比較的完形에가깝다할것이다.배출됨이甚하지않아날씬한듯하나各部의手法이洗鍊되지못하여말쑥한印象을주지않는다.年代는高麗下代로推定된다.實測值(cm)는...甬筒高四・八口徑十三・七口徑厚一・五上徑八・三上帶一・二下帶一・八幢座徑二・八乳廓上三・七下四・五×四이다.이梵鐘은今年六月初에京畿道楊平郡龍門山廢寺址의바위틈에서發見되어(처음發見當時부터바위에끼어우구러져있었다고한)그후 곧骨董仲介人을通하여市內博古堂(鍾路三街七三)에入手되었다는것인데(博古堂主人黃圭董氏談話)지난六月二十二日黃氏의好意로筆者는現品을調査할수있었다.끝으로이遺物이 잘保存되기를期待하면서調査에 많은便宜를주신氏께感謝드린다.

### 清原郡 梧倉面 石造佛像

李 殷 昌

一九六三年 가을에 忠清北道 清原郡 梧倉面의 石造佛像 二軀를 調査할수있었다.其一是 槐亭里의 石造如來立像이고 其二是 塔里의 石造佛坐像인바 모두精巧한 石像이기에 이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 一、槐亭里 石造如來立像

忠北線 梧根場驛에서 鎮川行 道路로 가다가 槐亭里 앞에서 徒步로約一km쯤되는「탑상굴(塔像洞)」을찾으면 寺址로 推定되는 곳이있고이곳에홀로 石像一軀가서있다.丘陵 南斜面에 西向하고 있는즉 位置하고있는 地形과 方向 등으로 보아 原位置를 變更한 것 같다.

石像은 花崗石製로 그 乳白 色이 그대로 있고 右肩 右手의 一部가 破損된外 比較的 完存하는 것이다.素髮에 肉髻가 있는데 現存 肉髻는 破損으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다.兩耳는 길고 耳朶가 어깨까지 드리우고 있으며 耳孔이 表示되었다.兩眉間에는 白毫相이 있었던바 지금은 圓孔痕跡이 남아 있으며 兩眉는 半月形의 三段弧線으로 그려져 있고